

“소통·통합, 전남체육 새로운 100년 열겠다”

인터뷰

김재무 초대 민선 전남체육회장 당선인

선택과 집중 ‘스포츠도 산업’ 마인드 제고 청사진 마련 엘리트 체육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실업팀 창단 전력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



첫 민선 전남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무 당선인이 지난 17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전남체육이 진일보하는 큰 틀을 만들겠습니다.”

김재무 민간 첫 전남체육회장 당선인은 최근 전남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해 전남도, 전남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증액, 편성권한을 체육회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침체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 실업팀까지 연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실업팀 창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예산확보는 매칭 형태로 국비지원이 많은 생활체육보다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지자체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하거나 스폰서 기부 등을 유도해 엘리트 체육을 강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복안을 밝혔다.

특히 “엘리트 체육의 기본은 연계육성인데 전남의 경우 종목별 편중도가 심해지면서 비대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 엘리트체육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스포츠 산업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해 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프라를 확

용, 종목별 2-3개 정도를 선택해(광양 축구, 순천 소프트볼 등) 각종 전국대회, 동·하계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며 지역경제에도 보탬도 돼 결국 “스포츠도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무엇보다 당면 현안은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며 “체육회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복지 문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공약으로 ‘튼튼한 재정 자립도’를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전남체육인 복지 확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이러한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공약 실천준비위원회를 꾸려 전남체육 중흥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는 각오다.

민간 첫 체육회에 걸 맞는 조직 진단과 인적 쇄신 방안도 구체적으로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민간 첫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며 느꼈던 소회도 피력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선 현장 지도자를 만나 보면서 느낀 점은 선거인단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시·군별로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 체육회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인단을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정경발표를 안하기로 했다”고 뒤늦게 진행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만 없었다면 이번 선거는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공인의 첫번째 덕목은 청렴”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 운영과 더불어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과 통합을 이뤄내 전남체육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이세돌 9단이 19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3번기 제2국에서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의 역습’

이세돌, AI 한돌에 호선으로 불계패... 초반 실수가 치명타

최종국은 내일 고향신안서

이세돌이 인공지능(AI)과 맞바둑에서 벽을 넘지 못했다. 이세돌은 19일 열린 NHN의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2국에서 ‘호선(五先)’으로 대결을 펼쳤으나 122수 만에 불계패했다.

이로써 이세돌은 21일 자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옹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리는 마지막 제3국에서는 다시 2점을 놓고 AI와 맞서게 됐다.

전날 열린 1국 2점 바둑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이날 2국 맞바둑에서 흑을 잡고 양 소목 포석을 펼치며 실리작전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반 초입 좌상귀 점전에서 저지른 미세한 실수가 치명상이 됐다.

이세돌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잡은 한돌은 불과 40여수를 둔 시점에서 승률 그래프가 90% 가까이 육박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좌상귀 실수로 작은 손해를 입은 이세돌은 후반으로 손길을 돌렸으나 인공지능은 단 한 번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비세를 느낀 이세돌은 여기저기 상대 약점을 찔러보며 인공지능을 상대로 특유의 ‘흔들기’를 펼쳤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철벽 방어를 쉽 리 흔들지 못했다.

이세돌은 승부사로서 더는 해 볼 곳이 없다고 판단하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돌을 거두고 말았다.

한돌은 전남 2점 바둑에서 영동한 실수를 저지르며 자멸했지만, 호선 바둑에서는 이세돌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한돌은 지난 1월 국내 바둑랭킹 최상위 그룹인 박정환·신진서·신민준·이동훈·김지석 9단 등과도 호선으로 대결해 모두 승리했다.

이세돌은 대국 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라며 “초반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와서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대국은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승패를 따지지 않고 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열린 동아시아컵 한국과 일본전에서 승리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오늘 여자부 대장정 돌입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이 20일 부산개발공사와의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체육회 제공

황인범 결승골, 日 꺾었다 E-1 챔피언십 3연패 쾌거

벤투호가 ‘중원의 조용사’ 황인범의 결승 골을 앞세워 ‘속적’ 일본을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3연패의 쾌거를 달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8일 열린 2019 EAFF E-1 챔피언십 3차전에서 전반 28분 터진 황인범의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이번 대회에서 ‘무실점 3연승’(승점 9)을 따낸 벤투호는 일본(2승 1패·승점 6)을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2015년과 2017년 대회에 이어 3연패뿐만 아니라 통산 5번째(2003년·2008년·2015년·2017년·2019년) 정상에 오르며 역대 최다 우승을 이어갔다.

개최국이 우승한 것도 한국이 처음이다.

더불어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맛보는 겹경사도 맞았다.

일본과 최근 A매치에서 2연승을 거둔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도 42승 23무 14패로 앞서 나갔다.

한편, EAFF E-1 챔피언십을 끝으로 올해 18차례 A매치(12승 4무 2패) 일정을 모두 마친 벤투호는 내년 3월 2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다시 모이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돌풍 지켜보라”

오늘 지난해 우승팀 부산개발공사와 개막전 필승 각오 오세일 감독 리더십...송해림·원선필 영입 ‘막강 전력’

광주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여자실업핸드볼팀(광주도시공사)이 시즌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20일 오후 4시10분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부산시실공단과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을 대비, 오세일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구성하고, 신인 및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등 선수단을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경기력 향상 일환으로 국가대표 출신 송해림과 국가대표 원선필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국가대표 피봇(PV) 원선필은 자유계약선수(FA)로, 지난 시즌까지 인천시청에서 뛰었고 9월 올림픽 예선에도 출전해 우리나라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탠 선수다. 또 지난 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베스트’

에 선정됐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송해림은 지난 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고 어시스트상을 받았다.

원선필은 피봇으로서 현재 팀의 취약 포지션을 보강하며 전력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 김금순과 김지혜와 호흡을 맞춰 수비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팀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

송해림은 센터백(CB)과 라이브백(LB)을 맡고 있으며 팀의 만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선수들이 공격력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팀 ‘에이스’로 활약하다 임의 탈퇴 선수로 공식됐던 강경민(23)이 돌아와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탤다.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망주 방민

서(RW·RB 조대여고 졸업 예정)와 안솔비(PV·경남체고)를 지명,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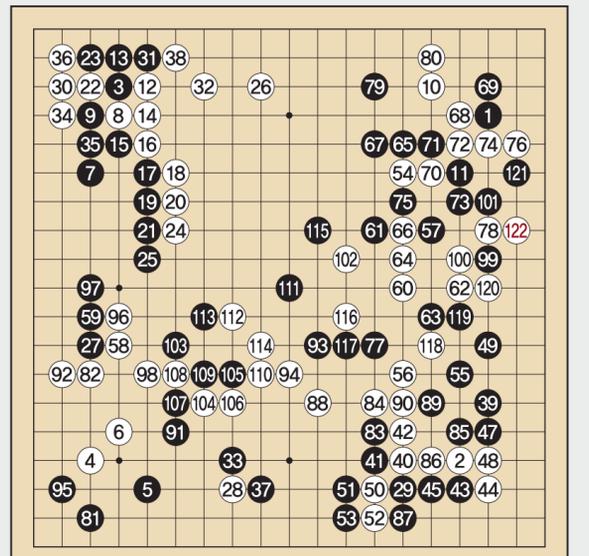
동계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진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2일 원선필이 본격 합류하면 코리아리그 돌풍 주역으로 중위권 도약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일 감독은 “ 그동안 팀의 가장 팀 취약점이었던 피봇을 보강하게 돼 전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일당백 선수들 영입으로 공격만큼 중요한 수비력을 보장하고 국가대표급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막전 상대가 작년 우승팀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많은 강팀이 나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과 강한 정신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나서겠다”며 “SK·삼척·부산을 제외한 5개 팀이 전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또한 하위 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이세돌 vs AI 한돌 2국 기보

흑 이세돌 백 한돌 결과: 122수·흑 불계패 호선/백 7집반덤



자료/NHN

연합뉴스

장애 넘어 새로운 꿈을 꾸다

전남장애인체육회 ‘2019 신명나는 스키캠프’ 성료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6-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9 장애인스키학교를 함께하는 ‘신명나는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스키학교는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험하고,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스키캠프에는 70여명(선수 50명, 경기요원 및 지도자 20명)이 참여해 모노스키와 알파인스키 종목에 대해 이론교육과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 대상자는 동계 종목 운영이 어려운 전남과 충남, 부산, 대구지역 장애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통해 모집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비 대여와 스키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내년에도 스키학교를 개최해 다양한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